

안전한 오프라인 영화제 만든다

‘제9회 무주산골영화제’ 새로운 방향 · 전체 프로그램 특징 발표

‘제9회 무주산골영화제’(2021. 6.3.~6.6. / 6.11.~6.13.)가 고유의 영화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보다 안전하게 영화제를 개최하고자 2주 간에 걸친 총 7일간의 영화제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무주산골영화제는 6월 첫째 주(6/3 목 ~ 6/6 일)와 둘째 주(6/11금 ~ 6/13 일) 총 2주에 걸쳐, 총 7일의 기간 동안 관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오프라인 개최를 확정했다. 이처럼 소규모 장기 축제로서의 전환을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자연 친화적이고 야외 프로그램에 특화된 무주산골영화제 장점을 최대한 살려 관객들을 오프라인으로 만나되 일정을 분산시켜 관객의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불특정 다수의 관람객 방문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올해는 100% 사전 예약제를 도입,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한 적정 수량의 ‘무주산골영화제 1일 관람권’을 판매하여 관람권 소지자에 한하여 영화제 현장에 입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제9회 무주산골영화제 공식 포스터.

영화제 기간 동안 모든 관객, 게스트, 영화제 현장 관계자 모두 안전하게 영화제를 치를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 방침 및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안전한 영화제 운영을 위해 힘 쓸 예정이다.

올해 제9회 무주산골영화제에서는 ‘창’, ‘판’, ‘닥’, ‘술’, ‘길’ 5개의 색션을 통해 총 29개국 95편의 영화를 만나볼 수 있다. 먼저 매년 고전영화와 동시대 음악의 창조적 결합을 통한 개막작을 선보였던 무주산골영화제가 올해는 (조제)의 감독관 감독과 (한여름의 환타지아)의 장건재 감독이 공동 연출을 맡은 최신작 <달이 지는 밤>을 개막작으로 선정해 특별함을 더한다. <달이 지는 밤>은 무주에서 무주군민들의 참여와 함께 완성한 영화로, 국내 개성 있는 감독들을 응원하고 지지하기 위해 시작한 ‘무주장편영화제작프로젝트’의 첫 번째 결과물로서 개막작 선정에 그 의미가 크다. 6월 3일 개막식에서는 특별히 <달이 지는 밤>의 음악감독인 모그와 이만희 감독의 새로운 음악 연출로 라이브로 연주가 더해진 <달이 지는 밤>을 만날 수 있다.

이제는 무주산골영화제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한 ‘넥스트 액터’ 프로그램 역시 관객들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하다. 세 번째 주인공으로 선정된 올해의 넥스트 액터 배우 안재홍의 출연작 중 <쪽구왕> <소공녀> <슬픈선> <울렁울렁 울렁대는 가슴 안고> 등의 작품들을 상영하고, 배우연구소 백은하 소장파와 함께하는 야외 토크 시간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무주의 절경이 아름다운 덕유산에서 직접 제작한 셀프 트레일링 및 책자 출간, 그의 연기에 대한 소신과 매력 포인트를 살살이 공개하는 전시 프로그램도 영화제 기간 중 선보일 예정이다.

매년 전세계 영화감독 중 동시대 영화 미학의 최전선에 서 있는 감독이면서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감독을 집중 조명하는 감독 특집 프로그램 ‘무주 셀렉트 : 동시대 시네아스트’에는 클레베트 멘토사 필류 감독이 선정되어 기대를 모은다. 브라질을 대표하는 영화 감독이자 정치와 혁명의 시네아스트로 불리는 그의 장편영화 3편이 상영되며 송경원, 이나라, 정지혜 평론가의 감독론과 개별 작품론이 담긴 공식 책자도 함께 출판될 예정이다.

한편 매년 무주산골영화제의 관객이벤트 중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산골콘서트(공연&토크) 프로그램에도 전문성을 강화했다. 올해에는 대중음악계 전반의 새로운 흐름과 표준을 선도하는 레이블 ‘매직 스트로베리 시운드’와 협업, 더욱 풍성한 공연 라인업으로 관객들에게 초여름 자연 속 낭만을 선물한다. 여기에 작년에 신설되어 신선한 재미를 선사했던 배순탁 작가와 두 뮤지션이 함께하는 ‘뮤직 라이브 무주’ 프로그램과 ‘창’ 색션 상영작 속 배우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토크 프로그램, ‘닥’ 색션 상영작 속 주인공들의 라이브 공연이 어우러진 특별 무대까지 다채로운 볼거리가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제9회 무주산골영화제의 개최와 관련된 세부 사항과 상세 일정은 추후 무주산골영화제 공식 홈페이지와 공식 SNS를 통해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변산 속의 변산! 지름박골의 곤충’ 개최

부안누에타운 곤충탐사과학관서 13일~8월 말까지 전시

2021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안누에타운 곤충탐사과학관에서 부안군 교육청소년과 손민우박사는 변산반도에 서식하는 곤충을 생태 촬영과 함께 제14회 전반기획전을 오는 13일부터 8월 말까지 전시한다고 밝혔다.

부안군 변산면 지서리에 위치한 지름박골은 가까운 과거에도 골짜기 중의 고라실(골짜기)이라 할 수 있는 오지이다.

사람의 발길이 크게 닿지 않은 이곳 골짜기에는 어떠한 곤충들이 모여 사는지 3년 동안의 탐사로 얻은 자연생태사진과 함께 변산반도 국립공원 외 지역에서 채집한 곤충들의 실물을 보여준다.

부안누에타운은 ‘2023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캠프’ 대원들이 탐방하는 누에곤충박물관으로 변산을 찾는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이곳



여 서식하는 귀중한 곤충자원들을 보여주고자 변산반도의 곤충 백신을 5년째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중학교 기증유물 기획전시

부안청자박물관, 국립전주박물관에 기증한 49점 유물 소개

부안군은 지난 4일부터 10월 말까지 6개월간 부안청자박물관에서 기획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부안중학교에서 국립전주박물관에 기증한 49점의 유물을 소개하고 문화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시유물은 ‘부안중학교 기증유물 일괄품’으로 2015년 부안청자박물관이 국립전주박물관으로부터 장기대여를 받은 유물이다.

부안중학교 기증유물을 장기대여 받기 위하여 기증 연도와 기증자, 기증 사유 등을 찾아보았으나 국립전주박물관의 정시인 전주시립박물관 시절 부안중학교 일괄품이 기탁되었다가 국립전주박물관으로 이관되면서 기증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서류에는 ‘부안중학교 기증’이라는 내용만 간략히 적기되어 있었다.

대여유물은 총 49점으로 고려 청자(靑瓷) 14점, 고려 철유자(鐵紬瓷) 1점, 중국 원나라 자기 6점, 고려시대 청동거울(銅鏡) 1점, 조선시대 분청사기 20점, 조선시대 백자 7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려 청자는 부안 진서리와 유천리에서 제작된 참외모양 주자, 호, 단지, 연관뚜껑이 새겨진 발 등이 있으며, 조선시대 분청사기와 백자도 부안과 인근지역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릇의 종류(器種)는 병, 호, 항, 반구편, 매병, 완, 발, 제기발, 주자, 합, 접시, 전접시, 대합 등으로 다양하다. 이 중에서 완, 발, 항, 접시, 주자는 차를 마시거나 우려내는 등 차도구로 사용된 그릇이며, 찻잔



황비창천(煌不昌天)이 새겨진 고려시대 청동 거울.

의 일종인 완과 발은 총 26점으로 기증유물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이 특징이다.

부안중학교 일괄품은 앞서도 밝혔듯이 기증주체가 ‘부안중학교’라는 사실 외에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와 같다. 1990년 국립전주박물관 개관 이전인 전주시립박물관 시절 1963~1980년대 즈음 전주시립박물관에 기탁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을 뿐이며, 학교 측에도 이와 관련한 자료나 단서는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40~50년간 박물관 수장고에 잠들어 있던 부안중학교 기증유물의 실체를 처음으로 소개하고, 기증을 통해 문화유산을 공유하고자 하였던 문화의식이 높은 부안사람들이 있었음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며 이번 기획전시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군산시립합창단, “어린이 뮤지컬 온 가족 즐기러 오세요”

22일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서 ‘왕벌 도깨비를 물리친 엄지동자’ 공연

푸르른 5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즐길 수 있는 어린이 뮤지컬이 공연된다.

군산시립합창단(단장 신현승 부시장은)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유발해 감성으로 이해하는 ‘왕벌 도깨비를 물리친 엄지동자’가 오는 22일 오후 3시,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재미있는 공연물로서 가족이 함께 공연을 보는 것만으

로도 가족의 마음이 치유되고, 어린이와 어른 관객 모두 한 마음이 되어 동심 속 추억 여행을 떠나는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다.

즐거리는 가난과 기근 때문에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여섯 명의 형제들이 가장 어리고 왜소한 막내 엄지 동자의 지혜와 현명한 덕분에 왕벌 도깨비 집에서의 위기를 모면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공연은 안전한 공연 관람을 위해(사회

적 거리두기) 객석 간 거리두기(50%)를 충분히 실시하며, 공연티켓은 전석 5,000원(할인: 2,500원), 티켓링크 홈페이지를 통해 티켓예매가 가능(48개월 이상)하고 현장티켓은 공연 당일 공연 한 시간 전부터 구입이 가능하다.

예술의전당관리과 관계자는 “부모님들이라면 절대 놓치지 않을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며, “공연을 통해 부모와 아이가 서로에 대한 사랑을 알아갈 수 있는 가슴 뭉클한 감동과 행복의 공연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